

# 보도자료



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 바랍니다.	배포일시	2021. 1. 19(수)
담당	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기훈(☎051-861-9370), 부부장 우민식(9373)		

## 釜·蔚 中企 2곳 中 1곳 '2년연속 설자금 확보 곤란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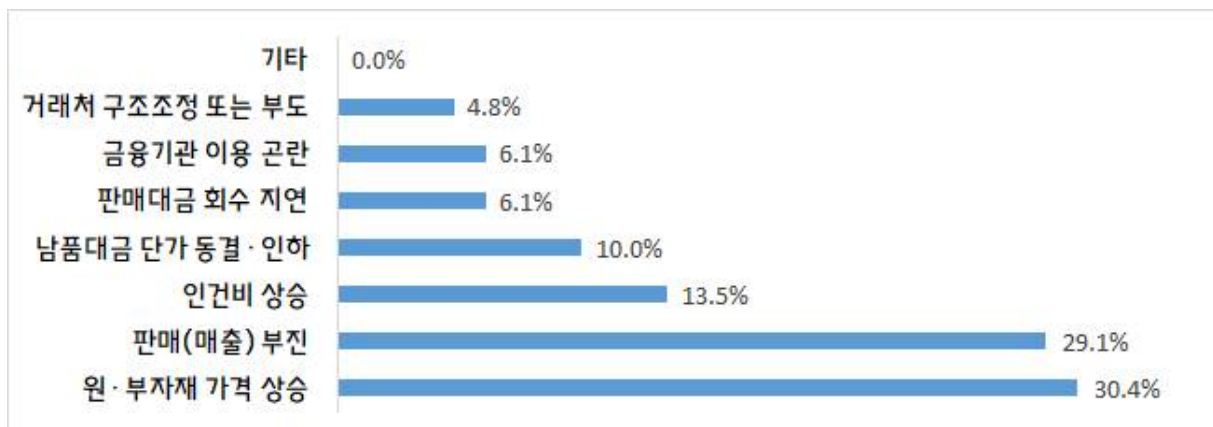
- 한은 금리인상 여파, 설자금 애로 '높은 금리' 응답 10.9%p 증가 -
- 설 상여금, 기본급 약 59.7% 또는 72만원 수준, 휴무일 평균 4.8일 -

□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(회장 허현도)에서 부산·울산지역 중소기업 227개사를 대상으로 한 '2022년 설자금 수요조사' 결과('22.1.6 ~ 1.10), 2곳 中 1곳 이상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했다.

- '20년 40.2%에서 '21년 54.7%, '22년 53.3%로 2년 연속하여 곤란 응답의 비율 절반을 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.
- 자금 사정이 곤란한 업체의 82.4%가 '코로나19'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전년 대비 응답 비율이 '그렇다' 1.9%p 증가, '아니다' 3.1%p 감소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상승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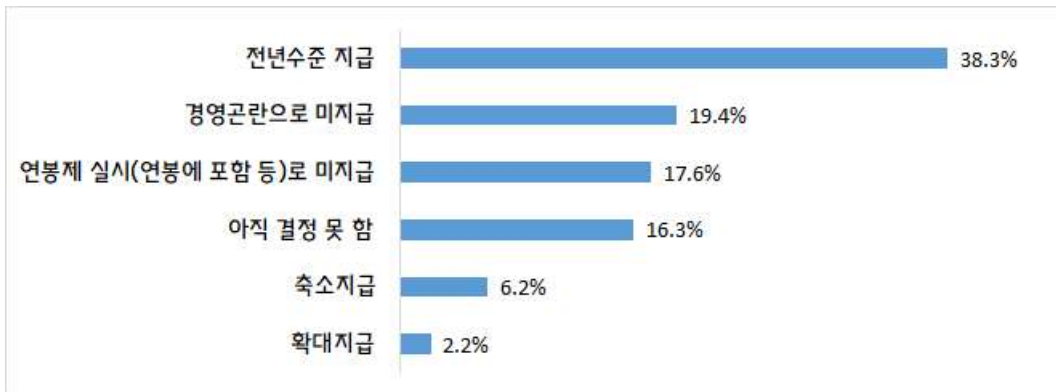
□ 자금 사정 곤란의 원인은 지속적인 공급망 대란으로 인한 '원·부자재 가격 상승'(30.4%)이 '21년도 대비 13.4%p 증가하여 1위를 하였고, '판매(매출) 부진'(29.1%), '인건비 상승'(13.5%) 순이었다.

<그림 1> 자금사정 곤란 원인(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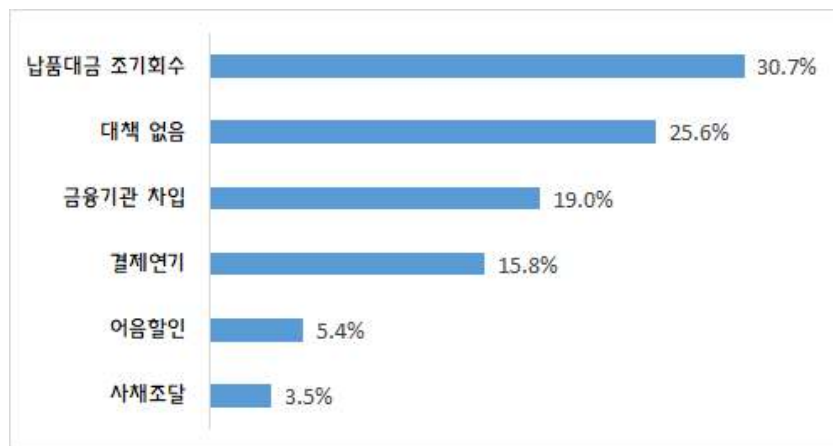
- ‘설’ 상여금 지급계획은 ‘전년수준 지급’(38.3%)이 가장 높았으며, 미지급 및 축소지급이 43.2%, ‘결정 못 함’ 응답도 16.3%였다.
  - 상여금을 정률 지급 시에 기본급의 59.7%, 정액은 1인당 72.2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, '21년도 65%와 76.4만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, 휴무일은 평균 약 4.8일(주말 포함)로 조사되었다.

〈그림 2〉 ‘설’상여금 지급계획



- 자금 확보를 위해 ‘납품대금 조기회수’(30.7%), ‘금융기관 차입’(19.0%), ‘결제연기’(15.8%) 등의 방안을 가지고 있으나, 기업의 1/4은 ‘대책 없음’(25.6%)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.

〈그림 3〉 부족한 ‘설’자금 확보 방안(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)



-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곤란하다는 응답이 36.1%로 원활하다(8.4%)보다 27.7%p 높아, '21년도 25.1%p에 비해 간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조달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은행에서 설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으로 ‘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’(22.2%), ‘대출한도 부족’(21.6%), ‘높은 대출금리’(20.7%)가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, 특히 ‘높은 대출금리’는 ‘21년 9.8%에서 10.9%p나 증가하여, 금리상승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
□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“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한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지방경제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며,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확보와 지원정책이 매우 절실하다.”라며, “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도,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가 연장되어야 한다.”라고 했다.

[붙임] 「2022년 설자금 수요조사」 보고서 1부.

---

**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** 47519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(연산4동) Tel. 051-861-9373 Fax. 051-637-2066

“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”